

	서는 쉽게 전달 된 듯하다. • 교육의 포커스는 카리타스를 현장에 어떻게 실천할까? 이다. 평가 척도를 통해 우리 기관을 살펴 보는 것이었다. 이것을 오해하지 않고 시설장들이 받아 들일 수 있다면 시설장 교육에 이 과정을 진행하면 어떨까 한다. 시설장이 각 기관을 이 척도로 체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듯하다.
설지원 위원	• 중간관리자 교육은 신입직원 교육에 비해 수월하였다. • 장소영 강사의 교육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쉽게 전달되었다. 기관 간의 공유 나눔의 시간이 좋았다. • 본당 대구 사례가 중간관리자들에게 적용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준 것 같다.
심선형 위원	• 이주형신부님의 카리타스에 대한 재정립이 있어서 인지 대구 사례가 쉽게 받아들여 졌다. • 시설장 교육 요청이 많았는데 역할에 대한 교육 요청인 것 같다.
이정태 위원	• 참석인원이 35명 정도 되면 적절할 듯 하다. 저녁 식사 의사소통이 안되어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신부님들의 조율으로 무난히 진행되었다. • 교육체계를 적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. 그때 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 보다 신입과 중간관리자 교육의 틀은 몇 년간 고정하면 시설에서도 수료를 순차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다. • 교구 역사 정리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.
김현주 위원	• 교육의 틀을 정리할 때가 된듯하다.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입, 관리자 등의 의견이 시설장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된다. • 신입직원교육 평가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었다.
한수연 위원	• 신입직원교육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여유가 있었고 시간 배정도 좋았다. • 교육 내용이 다 좋았으며 특히 장소영강사님 교육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.
김영두 위원	• 진행이 원활하였고 조별로 진행하는 모임이 생동감이 있고 기관간 교류가 이루어져 좋았다.
김경주 위원	• 교육의 목적을 잘 이루려면 신입 교육, 중간관리자 교육, 기관장 교육이 연계가 잘 되어야 한다.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중간관리자들이 기대가 생기고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욕구가 시설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많이 준 것 같다.

5

결 산

구분	산출내역원		금액(원)	비고
수입	참가비	27명×50,000원=1,350,000원	1,350,000	
	교육지원금	2,300,000원	2,300,000	
	이월금	622,446원	622,446	
	소계		4,272,446	
지출	강사비	우수사례 발표 답례 상품권 구입 50,000원×2명=100,000원 김진의 200,000원 장소영 500,000원	800,000	
	숙박비 (1박/4식) 대관료	1인1실 1명×45,000원= 45,000원 2인1실 28명×35,000원=980,000원 3인1실 28,000원×3명= 84,000원 식대 144식×9,000원=1,296,000원 시설사용료(지혜의방) 1식×55,000원= 55,000원 냉난방비(지혜의방) 1식×130,000원=130,000원 담당신부님차감 1명×81,000원=-81,000원	2,509,000	
	간식 및 친교의시간	교육간식 40개×9,000원=360,000원 치킨 73,000원 기타간식 및 친교의시간 물품 구입 360,720원	793,720	
	현수막	40,000원×1식=40,000원	40,000	
	평가회		96,000	
	소계		4,238,720	

※ 잔액 : 33,726원

6

관련사진



